

부모의 양육태도와 중학생 자녀의 합리적 진로 의사결정 유형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박영생¹, 변상해^{*}

¹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ttitude and Rational Career Decision-Making Type of Middle School Students

Young-Saing Park¹, Sang-Hae Byun^{*}

¹Department of Social Welfare Counselling, Seoul Venture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학생의 합리적 진로 의사결정 유형에 미치는 영향 및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6년부터 자유학기제를 맞는 중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지원하기 위해 가정과 학교에서 공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예비조사로 수행되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강북에 위치한 A 중학교 학생 345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불성실응답을 제외한 335부를 SPSS v.22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분석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종교와 수입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의 양육태도 중 민주적 양육태도가 중학생 자녀의 합리적 진로 의사결정 유형에 가장 큰 영향을 발휘했으며 익애적 양육태도는 중학생 자녀의 합리적 진로 의사결정 유형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권위주의적 양육태도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학생 자녀의 합리적 진로 의사결정 유형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능감은 민주적 양육태도에서만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중학생 자녀의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부모교육과 함께 자기효능감 이외의 변인이 개입되어야 할 필요성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as a preliminary study to analyze the effect of parenting attitudes on the career decision-making types of middle school students. We analyzed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to develop a program that can be implemented jointly at home and at school to help middle school students who are facing the Free Semester System in 2016 to form an ideal career decision-making type. To that end, a survey was conducted with 345 students attending a middle school located in Northern Seoul, and the 335 valid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using SPSS v22. In the sociodemographic analysis, there was no difference in parenting attitudes between groups in terms of religion and family income. The democratic attitude of parents had the greatest impact on the rational career decision-making type, while the permissive attitude had a partial effect. The authoritarian attitude had no effect. Self-efficacy had a mediating effect in only the relationship between democratic parenting attitude and the rational career decision-making type. These findings imply that to help middle school students form a rational career decision-making type, intervention in variables other than self-efficacy is necessary in addition to parent education.

Keywords: Career, Decision-Making Type, Free Semester System, Parenting Attitude, Self-Efficacy

^{*}Corresponding Author : Sang-Hae Byun(Seoul Venture University)

Tel : +82-10-2509-1054 email: 9252279@hanmail.net

Received January 28, 2016

Revised (1st February 29, 2016, 2nd March 2, 2016)

Accepted March 3, 2016

Published March 31, 2016

1. 서론

청소년기는 발달적 측면에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큰 변화를 경험하는 생애주기로서, 이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은 Stanley Hall[1]이 말한 것처럼 질풍노도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 청소년기는 또한 생애주기적인 특성상 성인기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진로를 선택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압박감은 더욱 가중된다 할 수 있다.

2014 통계청 자료[2]에 따르면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에 해당하는 13~18세 청소년들의 고민은 주로 ‘공부(52.6%)’와 ‘외모(13.1%)’, ‘직업(10.3%)’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는 공부가 진로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60%를 상회하는 청소년들이 진로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고 유추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확고한 가치관이나 인생목표를 설정하고 직업세계에 대한 탐색이 전문화, 세분화시켜 진로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시기는 성인기에 인접한 고등학교 시기이다[3, 4]. 그러나 삶을 보다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중학교 시기부터 자신의 흥미와 특성, 능력 등을 탐색하여 잠재적인 진로를 선택하고 시험해보는 진로탐색이 필요하다[5]. 그 이유는 중학생 시기에는 자신을 타인과 비교함으로써 자신의 장점보다 단점을 부각시켜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확고한 신념 없이 타인의 의견에 따라 행동을 결정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6, 7].

중학생의 진로탐색 필요성은 정부가 2016년부터 자유학기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스스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정책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자유학기제의 시행 배경은 지금까지 시행되어온 교육이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입시일변도의 수업 방식을 강요하고 있다는 범사회적인 우려 때문이라 할 수 있다[8]. 그러나 자유학기제가 원래의 취지대로 효과를 발휘하여 중학생들에 대한 올바른 진로 지도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진로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형성한 진로의사결정 유형을 파악하고, 그러한 경향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분석하는 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중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생각을 결정하는 요인에는 다양한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가정과 부모의 역할이 그 어떤 것보다 강한 영향을 발휘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

을 것이다. 양육자로서의 부모는 자녀가 하나의 인격체로 성장, 발달해가는 과정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체계이기 때문이다[9]. 또한 진로 선택은 아동기에 형성된 욕구에 대한 반응으로 이루어지며[10], 어린 시절에 경험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진로와 관련된 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11]. 특히 한국 사회에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인해 나타나는 권위주의적 양육태도나, 자녀 중심 문화로 인해 나타나는 익애적 태도는 자녀의 주도적인 삶을 저해하는 요소로 보고되고 있다[12, 13].

진로의사결정 유형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주요 요인으로는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을 들 수 있다. 자기효능감이란 주어진 과제나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신념으로서 행동의 선택, 수행, 그리고 지속성에 영향을 미친다[14]. 따라서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진로발달 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15 16].

이에 본 연구는 부모가 공동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학생 자녀의 진로의사결정 유형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자기효능감이 어떠한 매개효과를 발휘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자유학기제를 목전에 앞둔 중학생들의 효과적인 진로지도를 위해 가정과 학교에서 입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자녀 관계는 한 개인이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와의 상호작용은 자녀의 정서적, 지적, 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17], 자녀가 평생 동안 활용할 사회화의 기초를 구축하고 성격의 구조를 완성시키는 요인이 된다[18]. 또한 Basow & Howe[19]가 주장한 것처럼 진로선택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요인들 중에서 진로선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모로서, 자녀가 진로에 대한 적절한 결정에 도달하고 학업 및 직업적으로 유능한 존재라는 자기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역할자이다[20, 21]. 이러한 부모의 영향은 양육태도를 통해서 예측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양육태도란 부모가 자녀의 양육과 관련하여 취하는 보편적인 행동양식[22]이나 양육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경향성[23]이기 때문이다.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Symonds[24]는 1949년에 부모의 양육태도를 수용-거부, 지배-복종으로 차원으로 나누었으며, Schaefer[25]는 1959년에 애정-자율, 애정-통제, 거부-자율, 거부-통제로 분류하였다. 그 후, Baumrind[26]는 1971년에 부모 양육태도를 권위적(authoritative), 권위주의적(authoritarian) 및 허용적(permissive) 태도로 분류하였다. 권위적 양육태도란 자녀로 하여금 성인이나 또래와 협동하며 독립적이고 사회적인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양육하면서 적절한 통제와 규칙에 대해 엄격하지만 온정적으로 자녀를 대하는 양육방식을 지칭하는 반면, 권위주의적 양육방식은 부모가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자녀를 통제하고 자녀와 상호작용하기 보다는 부모의 지시를 따르도록 하며 온정적이지 못한 양육방식을 말한다. 허용적 방식이란 자녀에게 적절한 통제나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며 자녀의 행동을 수용하는 경향이 높고 자녀의 행동도 기대하지 않는 양육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Baumrind의 양육태도 분류는 스웨덴의 양육에 대한 나의 기억(my memories of upbringing) 척도에서 거부적 양육태도와 과보호적 양육태도, 애정적 양육태도로 유사하게 반영되어 있다. 여기에서 거부적 양육태도는 Baumrind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과보호적 태도는 허용적 태도, 애정적 태도는 권위적 태도에 해당된다[27].

한편 한국 부모들의 자녀양육 방식은 독재적, 허용적, 민주적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28]. 첫째, 한국 사회는 유교적 사상을 바탕으로 부모와 자녀 간에 위계질서가 중요시되는 권위적 문화로 특징지어진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의 말에 순종하기를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부모가 자녀의 요구에 지나치게 허용하고 과도하게 물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자녀의 행동에 통제를 가하지 않는 것이다. 셋째, 적절한 애정과 통제를 결합시킨 민주적인 방식을 들 수 있다. 정미라 외[29]도 현대 사회의 대표적인 양육 유형으로 민주적 양육태도, 강압적 양육태도, 방임적 양육태도를 들고 있다. 이러한 분류들은 Baumrind[30]의 PAQ(Parental Authority Questionnaire)와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Baumrind의 PAQ(Parental Authority Questionnaire)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부모의 양육태도를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부모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자녀에 대한 지나친 애정이나 과보호적인 태도인 익애적 양육태도, 애정과 통제가 균형있게 제공되는 민주적 양육태도[31~33]로 재구성하여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학생의 진로의사결정 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한편, 부모의 양육태도는 종교[34~39]나 가정의 수입[40~43]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종교와 수입이 양육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2.2 진로의사결정 유형

진로의사결정이란 다양한 정보를 조직하고, 여러 대안들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선택에 이르는 심리적인 과정이나 실행과정[44], 또는 특정 문제 상황에 처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로 미래를 예측하여 적절한 대안을 선택하며 자신의 미래를 이끌어 가는 과정[45]이라 할 수 있다. 진로결정(career decision)은 어떤 직업과 진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능력 발휘의 기회, 인간관계, 거주지 등 생활의 모든 측면에 걸쳐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개인의 생활양식을 결정하고 궁극적으로 한 개인의 일생을 결정하게 된다는 점에서 정체성과 적성, 흥미를 찾아 성숙한 직업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초를 닦아야 하는 청소년기에 특히 중요한 키워드라 할 수 있다[46]

일반적으로 진로의사결정과 관련한 문제는 진로결정이나 미결정과 같은 진로의사결정 수준이 주요관심사가 될 수 있는 한편, 진로의사결정은 어떤 방식으로 진로를 결정하는지와 관련된 진로의사결정 유형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47].

Dinklage[48]는 일반적인 의사결정유형을 계획형, 변민형, 지연형, 마비형, 충동형, 직관형, 운명론형, 순응형의 8가지로 분류하였다. 그 중 계획형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유형으로 보았고, 직관형은 어느 정도는 효과적이라고 하였으며, 나머지 유형들은 비효과적인 것이라 하였다. 또한 의사결정유형은 여러 종류의 의사결정에서 일관되게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Krumboltz & Scherba[49]도 의사결정유형을 합리적, 충동적, 직관적, 의존적, 운명론적 유형으로 분류하고 개인

은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전략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Harren(1979)[44]은 Dinklage가 분류한 의사결정 유형을 개개인이 의사결정을 할 때 합리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정도와 자신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정도에 기초하여 합리적 유형, 직관적 유형, 의존적 유형 세 가지로 재분류하고 진로의사결정 유형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인 ACDM (Assessment of Career Decision Making)을 개발하였다.

Harren에 따르면 합리적 유형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한 단계 한 단계 체계적으로 하며,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의사결정 전에 관련정보를 다시 살펴보고, 중대 의사결정 시 문제가 예상될 때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 유형을 말한다. 두 번째 유형인 직관적 유형은 의사결정 시 마음이 가장 끌리는 쪽으로 결정하며, 자신의 욕구에 따라 매우 독특하게 의사결정을 하며,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거나 검토하는 과정을 갖기보다는 자신에게 떠오르는 생각대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자주 있는 유형을 말한다. 세 번째 유형인 의존적 유형은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주로 다른 사람의 의견에 따르며, 친한 친구에게도 의사결정에 관해 이야기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의사결정을 못 한 채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으며 자신의 결정을 친구들이 지지해주지 않으면 그 결정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는 유형을 말한다[50].

본 연구에서는 Harren의 분류에 따라 진로의사결정 유형을 합리적, 직관적 의존적 유형으로 나누고, 중학생들이 아동기로부터 청소년기에 이르는 동안 가장 바람직한 합리적인 진로의사결정 유형을 형성하는데 부모의 양육태도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학년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2.3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이란 특정 행동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개인적 신념[17], 또는 과제수행에 필요한 동기와 인지적 자원이나, 성공에 필요한 신체적, 지적, 감정적 원천을 움직이게 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51]이라 할 수 있다.

Bandura[14]에 따르면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행동, 사고, 정서, 환경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므로, 특히 청소년기에는 문제해결에 필요한 기술과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자기효능감이 더욱 중요한 자원이라

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은 진로를 결정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진로 탐색 시 자기효능감이 높은 경우 필요한 정보를 수집, 선택,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는 반면, 자기효능감이 낮으면 진로탐색을 피하는 경향이 있고 심지어 자신의 관심사나 흥미를 추구하려는 기회조차 갖지 않는 경향이 나타난다[52~55]. 또한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들은 진로선택과 진로탐색 행동을 할 때 봉착하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내내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성숙한 태도로 임한다[56, 57].

Bandura는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을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로 나누었다[14]. 자신감이란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능력에 대해 보이는 확신 또는 신념의 정도를 말하며, 둘째, 자기조절 효능감은 개인이 자기관찰, 자기 판단, 자기반응과 같은 자기 조절적 기제를 잘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효능 기대를 지칭한다. 셋째, 과제난이도 선호란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 표출되는 것으로 자기효능감이 높은 개인은 도전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선택하는 반면, 자기효능감이 낮은 개인은 자신의 능력 수준을 뛰어넘는 위협적인 상황을 피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조절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상황만을 선택하는 경향을 말한다.

한편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사실도 지속적으로 보고되어 오고 있다[58~60].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은 자기효능감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진로의사결정 유형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있는 변인임을 말해주는 것이다[61~64]. 이에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학생의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유형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Bandura가 제시한 척도를 활용하여 자기효능감이 어떠한 매개효과를 발휘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학생 자녀의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자기효능감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중학생 자녀의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유형 관계에서 어떤 매개효과를 발휘하는지 분석하

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모형은 Figure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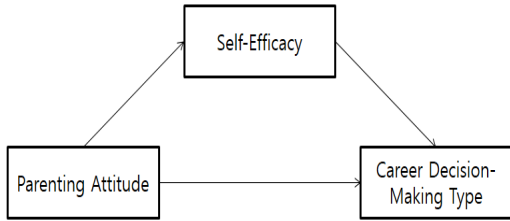


Fig. 1. Study Model

3.2 연구문제

-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부모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 둘째, 부모의 양육태도는 중학생 자녀의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유형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 셋째, 자기효능감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중학생 자녀의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유형에 매개효과를 발휘할 것인가?

3.3 연구가설

- 가설 1-1. 부모의 양육태도는 종교 유무에 따라 집단 간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1-2. 부모의 양육태도는 수입 정도에 따라 집단 간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2-1. 민주적 양육태도는 중학생 자녀의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유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2. 익애적인 양육태도는 중학생 자녀의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유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 가설 2-3. 권위주의적 양육태도는 중학생 자녀의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유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 가설 3-1. 자기효능감은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와 중학생 자녀의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유형에 매개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 가설 3-2. 자기효능감은 부모의 익애적 양육태도와 중학생 자녀의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유형에 매개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 가설 3-3. 자기효능감은 부모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와 중학생 자녀의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유형에 매개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3.4 표본 선정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연구 문제 및 가설에서 설정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울 강북 지역에 소재한 A 중학교 1-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15년 10월 10일에서 11월 10일까지 자기보고식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345부를 배포하였으며, 불성실 응답 10부를 제외하고 335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에는 SPSS v22.0를 활용하였다.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위한 요인분석과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빈도분석,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학생 자녀의 합리적인 진로의사결정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5 측정도구

3.5.1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김지근과 이기학[65]이 번역하고 강고은[24]이 사용한 Baumrind의 PAQ (Parental Authority Questionnaire)에 박종성[32], 송호숙[66]과 이창욱[33]의 연구에서 사용된 익애적 양육태도와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문항을 추가하여 예비조사를 거친 뒤, 연구목적과 내담자의 특성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은 총 24개의 문항으로 하위요인별로 민주적 양육태도, 익애적 양육태도,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각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채점 방식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요인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강고은[24]의 연구에서 보고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9$ 였으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 및 구성타당도는 Table 1과 같다.

3.5.2 진로의사결정 유형

진로의사결정 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Harren이 개발한 ACDM(Assessment of Career Decision Making)에 포함된 진로의사결정 유형 검사를 고향자[67]가 번역하고, 정주선[68]이 중학생용으로 수정 사용한 것을 예비조사를 거쳐 본 연구의 목적 및 내담자의 특성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Table 1. Reliability and Validity of Measurement Scales

Scales	Reliability	Validity		
		KMO	Bartlett	P
Parenting Attitude	.847	.914	3376.307	.000
Career-Decision Making Type	.702	.795	1807.830	.000
Self-Efficacy	.899	.895	3302.050	.000

설문은 총 18개의 문항으로 하위요인별로 합리적 유형, 의존적 유형, 직관적 유형 각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채점 방식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요인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정주선의 연구에서 보고된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58$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하위요인별 신뢰도 및 구성타당도는 Table 1과 같다.

3.5.3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김아영과 차정은[69]이 개발하고 김범구[70]가 사용한 자기효능감 설문지를 예비조사를 거쳐 연구 목적과 내담자의 특성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은 총 24개의 문항으로 하위요인별로 자신감, 자기조절능력, 과제난이도 선호 각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채점 방식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김범구의 연구에서 보고된 전체신뢰도는 Cronbach's $\alpha=.833$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하위요인별 신뢰도 및 구성타당도는 Table 1과 같다.

4. 분석 결과

4.1 연구 대상의 특성

먼저 응답자들의 성별은 남학생이 159명(47.5%), 여학생이 176명(52.5%)으로 비슷한 비율로 집계되었다. 학년도 1학년이 105명(31.3%), 2학년과 3학년이 각각 115명(34.3%)로 집계되었다. 형제자매의 수는 한명이 85명(25.4%), 두 명이 181명(54.0%), 3명 이상이 69명(20.6%)으로, 전체적으로 형제 두 명 가족이 절반을 상회하였다. 동거 부양자의 경우,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학생이 283명(84.5%)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어머니하고 거주하는 학생이 34명(10.1%), 아버

지하고 거주하는 학생이 14명(4.2%), 조부모와 거주하는 학생이 3명(9%), 기타 거주 형태가 1명(3%)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진로에 대한 주도적인 양육자와 관련된 질문에서는 부모 공통이 194명(57.9%)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어머니가 110명(32.8%), 아버지가 19명 (5.7%), 그리고 기타가 12명(3.6%)로 나타났다. 가족의 수입은 200만원 미만이 29명(8.7%), 200-250만원이 114명(34.0%), 350-500만원이 118명(35.2%), 그리고 500만원 이상이 74명(22.1%)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종교로는 기독교가 102명(30.4%), 불교가 56명(16.7%), 가톨릭이 14명(4.2%), 기타 종교가 6명(1.8%), 그리고 무교가 157명(46.9%)으로 집계되었다. 연구 대상의 특성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Category	Sub-category	Frequency	Percentage(%)
School Year	1st	105	31.3
	2nd	115	34.3
	3rd	115	34.3
Gender	Male	159	47.5
	Female	176	52.5
Number of Sibling	One	85	25.4
	Two	181	54.0
	Three & more	69	20.6
Living with	Father & Mother	283	84.5
	Father	14	4.2
	Mother	34	10.1
	Grand Parents	3	.9
	Others	1	.3
Major Career Guide	Father	19	5.7
	Mother	110	32.8
	Father & Mother	194	57.9
	Others	12	3.6
Family Income (Million KRW)	less than 2	29	8.7
	2-2.5	114	34.0
	3.5-5	118	35.2
	Over 5	74	22.1
Family Religion	Christianity	102	30.4
	Buddhism	56	16.7
	Catholic	14	4.2
	Others	6	1.8
	No Religion	157	46.9
Total		335	100.0

4.2 학년별 진로 의사결정 유형의 차이

학년별 진로 의사결정 유형에 대한 분석에서는 합리적 진로 의사결정 유형 평균은 학년이 높을수록 증가하였지만, 직관적 및 의존적 진로 의사결정 유형은 학년이 높을수록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진로 의사결정 유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동된다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진로 의사결정 유형에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4.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 차이

4.3.1 종교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 차이

종교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를 분석한 결과, 민주적 양육태도는 $F=.704(P=.590)$, 익애적 양육태도는 $F=.709(P=.586)$, 권위적 양육태도는 $F=.138(P=.968)$ 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4.3.2 가족의 수입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 차이

수입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를 분석한 결과, 민주적 양육태도는 $F=3.106(P=.027)$ 으로 통계적으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으나 사후검증 결과 유의미한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익애적 양육태도와 권위적 양육태도는 각각 $F=.614(P=.606)$ 와 $F=.361(P=.781)$ 로 통계적으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4.4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학생 자녀의 합리적 진로 의사결정 유형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학생의 진로 의사결정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부모가 공동으로 양육에 참여하는 가정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학생 자녀의 합리적 진로 의사결정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Table 3. Distribution of Career-Decision Making Type by School Year

School Year	N	Rational Type		Intuitional Type		Dependent Type	
		Mean	SD	Mean	SD	Mean	SD
1st Year	65	3.55	.76	3.35	.97	.321	.74
2nd Year	68	3.73	.68	3.32	.71	3.19	.80
3rd year	61	3.81	.84	3.22	.73	3.08	.92
F/P		1.857/.159		.452/.637		.442P/.643	

Table 4. Difference in Parenting Attitude by Family Religion

Div.	Frequency	Democratic Attitude			Permissive Attitude			Authoritarian Attitude		
		M	SE	df	M	SE	df	M	SE	df
Christianity	102	3.97	0.70	329	3.17	0.79	330	3.07	0.57	330
Buddhism	56	3.89	0.62		3.22	0.74		3.10	0.71	
Catholic	14	3.71	0.79		2.94	0.83		3.09	0.83	
Others	6	3.81	1.04		3.54	0.95		2.97	0.73	
None	157	3.86	0.69		3.21	0.79		3.03	0.69	
F/P		.704/.590			.709/.586			0.138/.968		

Table 5. Difference in Parenting Attitude by Family Income

Div.	Frequency	Democratic Attitude			Permissive Attitude			Authoritarian Attitude		
		M	SE	df	M	SE	df	M	SE	df
less than 2Million KRW	29	3.75	0.70	330	3.10	0.92	331	3.12	0.68	331
2Million-2.5Million KRW	113	3.77	0.72		3.16	0.85		3.09	0.68	
3.5Million-5Million KRW	118	3.95	0.70		3.20	0.72		3.04	0.64	
Over 5Million KRW	74	4.04	0.61		3.29	0.73		3.01	0.67	
F/P		3.106/.027*			.614/.606			.361/.781		

*p<0.05

Table 6. Effect of Democratic Parenting Attitude on Rational Career-Decision Making Type by School Year

Independent Var.	N	Model	B	SE	β	t	R ²	F/P
1 st Year	65	(constant)	1.841	.535		3.390		
		Democratic Attitude	.472	.141	.429	3.776***	.185	14.261/.000
2 nd Year	68	(constant)	2.139	.413		5.182		
		Democratic Attitude	.418		.446	4.046***	.199	16.367/.000
3 rd Year	61	(constant)	1.893	.539		3.154		
		Democratic Attitude	.422		.381	3.168**	.145	10.037/.002

*p<.05, **p<.01, ***p<.001

Table 7. Effect of Permissive Parenting Attitude on Rational Career-Decision Making Type by School Year

Independent Var.	N	Model	B	SE	β	t	R ²	F/P
1 st Year	65	(constant)	3.065	.388		7.889		
		Permissive Attitude	.217		.241	1.972*	.058	3.889/.005
2 nd Year	68	(constant)	3.280	.336		9.763		
		Permissive Attitude	.154	.101	.186	1.541	.152	2.375/.128
3 rd Year	61	(constant)	2.093	.330		6.345		
		Permissive Attitude	.469	.101	.516	4.627***	.266	21.413/.000

*p<.05, **p<.01, ***p<.001

분석하기 위해 학년별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4.1 민주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합리적 진로 의사결정 유형에 미치는 학년별 영향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가 중학생 자녀의 합리적 진로 의사결정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학년별로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합리적 진로 의사결정 유형에 미치는 영향은 1. 2. 3학년이 각각 $t=3.776(p<.001)$, $t=4.406(p<.001)$ 과 $t=3.268(p<.01)$ 로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2는 채택되었다. 설명력(R²)은 1. 2. 3학년이 각각 18.5%, 19.9%, 14.5%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가 모든 학년에서 자녀의 합리적 진로 의사결정 유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는 Table 6과 같다.

4.4.2 익애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합리적 진로 의사결정 유형에 미치는 학년별 영향

부모의 익애적 양육태도가 중학생 자녀의 합리적 진로 의사결정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학년별로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부모의 익애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합리적 진로 의사결정 유형에 미치는 영향은 1학년이 $t=1.972(p<.05)$, 3학년이 $t=4.627$

($p<.001$)로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2학년($t=1.541$)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2는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한편, 익애적 양육태도가 1학년보다 3학년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은 3학년 학생들이 부모의 익애적인 태도를 보다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설명력(R²)은 1학년과 3학년이 각각 24.1%와 51.6%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Table 7과 같다.

4.4.3 권위주의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합리적 진로 의사결정 유형에 미치는 학년별 영향

부모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가 중학생 자녀의 합리적 진로 의사결정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학년별로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부모의 권위적인 양육태도는 모든 학년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2-4는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강압적인 양육태도는 어떤 경우든 중학생 자녀의 합리적인 진로 의사결정 유형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분석 결과는 Table 8과 같다.

Table 8. Effect of Authoritarian Parenting Attitude on Rational Career-Decision Making Type by School Year

Independent Var.	N		B	SE	β	t	R ²	F/P
1 st Year	65	(constant)	3.828	.411		9.316		
		Permissive Attitude	-.006	.133	-.006	-.045	.022	.002/.965
2 nd Year	68	(constant)	3.432	.377		9.102		
		Permissive Attitude	.109	.377	.117	.954	.000	.911/.343
3 rd Year	61	(constant)	3.862	.448		8.618		
		Permissive Attitude	-.096	.150	-.082	-.635	.007	.404/.528

*p<.05, **p<.01, ***p<.001.411

Table 9.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in Relationship between Democratic Parenting Attitude and Rational Career Decision-Making Type

Phase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B	SE	β	t	R ²	F/P
Phase 1 (Independent → Mediating)	Democratic Attitude	Self-Efficacy	.240	.055	.301	4.369***	.090	19.086***
Phase 2 (Independent → Dependent)	Democratic Attitude	Rational Career-Decision Making	.458	.074	.406	6.610***	.165	37.947
Phase 3 Independent, Mediating → Dependent	Democratic Attitude	Rational Career-Decision Making	.397	.077	.352	5.174***	.194	23.020
	Self-Efficacy		.252	.096	.179	2.631**		

*p<.05, **p<.01, ***p<.001

4.5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학생 자녀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부모공동 양육 가정에서 자기효능감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중학생 자녀의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관계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각 양육태도에 대해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5.1 민주적 양육태도와 중학생 자녀의 합리적 진로 의사결정 유형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

분석 결과,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가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t=4.369, p<.001$), 매개효과 분석의 첫 번째 조건을 충족시켰다.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가 종속변수인 중학생 자녀의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t=6.610, p<.001$) 매개분석을 위한 두 번째 조건을 충족시켰다. 3단계에서도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을 동시에 독립변수로 투입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이 합리적 의사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t=2.631,$

$p<.001$), 그와 동시에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의 영향력이 2단계($\beta=.406, p<.001$)보다 줄어($\beta=.352, p<.001$) 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1은 채택되었다. 각 단계의 설명력(R^2)은 각각 9.0%, 16.5%, 19.4%로 나타났다. 또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한 결과,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가 중학생의 합리적 진로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Z=3.001, p<.01$)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는 Table 9와 같다.

4.5.2 익애적 양육태도와 중학생 자녀의 합리적 진로 의사결정 유형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

분석 결과,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부모의 익애적 양육태도가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t=.352$) 매개효과 분석의 첫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으므로 가설 3-2는 기각되었다. 그러나 2단계에서 독립변수인 부모의 익애적 양육태도가 종속변수인 중학생 자녀의 합리적 진로의사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t=2.754, p<.05$), 3단계에서도 부모의 익애적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을 동시에 독

Table 10.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in Relationship between Permissive Parenting Attitude and Rational Career Decision-Making Type

Phase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B/	SE	β	t	R ²	F/P
Phase 1 (Independent → Mediating)	Permissive Attitude	Self-Efficacy	.015	.044	.025	.352	.001	.124
Phase 2 (Independent → Dependent)	Permissive Attitude	Rational Career-Decision Making	.155	.060	.183	2.754*	.033	6.628*
Phase 3 Independent, Mediating → Dependent	Permissive Attitude	Rational Career-Decision Making	.149	.058	.176	2.574*	.112	12.056***
	Self-Efficacy		.396	.096	.281	4.115***		

*p<.05, **p<.01, ***p<.001

Table 11.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in Relationship between Authoritarian Parenting Attitude and Rational Career Decision-Making Type

Phase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B/	SE	β	t	R ²	F/P
Phase 1 (Independent → Mediating)	Authoritarian Attitude	Self-Efficacy	-.069	.042	-.117	-1.637	.001	2.680
Phase 2 (Independent → Dependent)	Authoritarian Attitude	Rational Career-Decision Making	-.027	.059	-.033	-.458	.033	.210
Phase 3 Independent, Mediating → Dependent	Authoritarian Attitude	Rational Career-Decision Making	.000	.058	.000	.006	.081	8.451***
	Self-Efficacy		.402	.098	.285	4.083***		

*p<.05, **p<.01, ***p<.001

립변수로 투입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종속변수로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이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t=4.115, p<.001$), 그와 동시에 익애적 양육태도도 자녀의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2.574, p<.05$). 이러한 결과는 자기효능감은 부모의 익애적 양육태도와 자녀의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유형에 매개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하지만, 익애적 양육태도가 중학년 자녀의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유형에 미치는 학년별 영향 분석(Table 7 참조)에서 나타난 것처럼 익애적 양육태도 자체는 중학생 자녀의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유형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4.5.3 권위적 양육태도와 중학생 자녀의 합리적 진로 의사결정 유형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

분석 결과,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부모의 권위주의

적 양육태도가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t=-1.637$) 매개효과 분석의 첫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따라서 가설 3-3은 기각되었다. 2단계에서도 독립변수인 부모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가 종속변수인 중학생 자녀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458$). 또한 부모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을 동시에 독립변수로 투입하고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유형을 종속변수로 한 3단계 회귀분석에서는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이 합리적 진로의사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t=4.083, p<.001$), 권위주의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유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006$). 이러한 결과는 권위주의적 양육태도가 중학년 자녀의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유형에 미치는 학년별 영향에서 나타난 결과(Table 8 참조)에서 나타난 것처럼 권위주의적인 양육태도는 중학생 자녀의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유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분석 결과는 Table 11과 같다.

5. 논의

본 논문은 부모가 공동으로 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양육태도를 민주적, 익애적, 권위주의적 양육태도로 나누어, 각각의 양육태도가 중학생 자녀의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학년별로 분석하고, 각각의 양육태도와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유형 사이에서 자기효능감이 발휘하는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자료 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 가족의 종교에 따라 자녀가 인지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민주적, 익애적 및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모두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신앙성숙도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이해주[71]의 논문, 신앙이 청소년의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이창욱[26]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지만, 종교를 가진 가정의 양육태도가 보다 긍정적이라는 김용국[38]과 지유선[39]의 연구 결과와는 다른 것이다. 따라서 종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수업에 따라 중학생 자녀가 인지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의 경우 민주적 양육태도와 익애적 양육태도는 수업이 높을수록 증가하였다. 이는 수업이 높을수록 부모가 자녀의 양육에 더 큰 관심을 쏟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권위주의적 양육태도의 평균 점수는 수업이 낮을수록 감소하였다.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서현석[72]의 연구와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교폭력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박설아[73]의 연구에서 수업이 높을수록 자녀가 지각하는 양육태도가 긍정적이라는 결과와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수업이 높은 가정일수록 자녀의 양육에 관심을 갖고 자녀에게 보다 민주적이고 허용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가정의 수업이 자녀가 합리적인 진로의사결정 유형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둘째, 학년별 진로의사결정 유형과 관련된 분석에서는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유형의 수준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평균값이 증가하였으며, 직관적 진로의사결정 유형과 의존적 진로의사결정 유형에서는 학년이 높을수록 평균

값이 감소하였다. 이는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유형 수준이 높아지는 반면, 직관적 진로의사결정 유형과 의존적 진로의사결정 유형의 수준은 낮아지는 것을 뜻한다. 한편, 모든 의사결정유형에서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의사결정 유형은 이미 중학교 이전에 부모의 양육태도를 포함한 다양한 요인에 의해 중학교 입학 이전에 상당 부분 형성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해준다.

셋째,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학생 자녀의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유형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 민주적 양육태도는 학년과 관계없이 중학생 자녀의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유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민주적인 양육태도가 자녀의 합리적인 진로의사결정 유형에 가장 바람직하다는 선행연구[75, 79]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한편 익애적 양육태도는 1학년 학생과 3학년 학생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2학년 학생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중학교 3학년 학생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중학교 3학년이 부모의 익애적인 태도를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익애적인 양육태도가 중학생 자녀의 진로의사결정 유형에 예측 가능한 일관적인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는 점은 향후 익애적 양육태도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다. 반면에 권위주의적 양육태도는 모든 학년에서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의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 자녀의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유형의 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부모가 권위적인 양육태도를 지양해야 하며, 그러한 목표를 위해 위한 부모교육이 필요할 것임을 시사한다.

넷째,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분석에서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와 중학생 자녀의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유형에서 자기효능감이 긍정적인 매개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학습력의 관계를 분석한 김지자 외[77]의 연구, 중학생의 진로 성숙과 자기효능감을 분석한 고복순[78]의 연구 결과와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는 부모의 민주적인 양육태도 하에서는 중학생을 포함하여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청소년들이 합리적인 진로의사결정 유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자기효능감을 증가시키는 노력이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반면

에, 익애적 양육태도와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하에서는 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익애적 양육태도와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환경에서 성장한 중학생 자녀의 경우 합리적인 진로 의사결정 유형을 형성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부모교육과 함께 자기효능감이 아닌 다른 변인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6. 결론

이상의 분석 및 논의에서 나타난 것처럼 부모의 양육태도 중에서 민주적 양육태도는 중학생 자녀의 합리적인 진로 의사결정 유형의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권위주의적 양육태도는 전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학생 자녀의 합리적인 진로 의사결정 유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부모가 보다 민주적인 양육 행동을 보여주는 노력과 함께 이를 지원할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익애적 양육태도는 예측 가능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으므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중학생들의 진로 의사결정 유형에서 학년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중학교 이전에 진로 의사결정 유형이 상당부분 결정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학생들이 합리적인 진로 의사결정 유형을 증진시키도록 돕기 위해서는 중학교 이전부터 그에 맞는 진로 지도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지금까지 진로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 자기효능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결과에서 논의된 것처럼 익애적 양육태도와 권위적 양육태도에서는 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므로 익애적 양육태도와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하에서 성장한 중학생 자녀들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부모교육과 함께 자기효능감 이외의 다양한 변수를 결합시킨 진로 지도 도구가 필요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중학생 자녀의 합리적인 진로 의사결정 유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양육태도를 민주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부모교육과 함께 자기효능감에 추가

적인 매개 변인들을 개입시킬 필요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진로 지도를 시작하는 시점이 중학생 이전에 다루어질 필요성을 확인했다는 점도 의미있는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해야 할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강북에 위치한 단일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므로 모든 중학생을 대상으로 일반화시키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표본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더욱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인구나 사회학적 변인을 최소한으로 제한하였다. 따라서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포괄적인 인구나 사회학적 변인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본 연구는 합리적인 진로 의사결정 유형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직관적인 진로 의사결정 유형의 장점을 보고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반영하여 향후 직관적 진로 의사결정 유형에 대한 연구도 추가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2016년부터 자유학기제를 맞이하는 중학생들이 합리적인 진로 의사결정 유형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가정과 학교가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 [1] Naver Knowledge Encyclopedia Dictionary of Psychology "puberty,"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118648&cid=41991&categoryId=41991>, Jan, 2016.
- [2] KOSIS <http://kosis.kr/customStatis/customStatis01List.jsp>. 2014. Jan, 2016.
- [3] B. H. Jeong, Y. M. Bae, & Y. S. Lee, "The Effect of psychological independence form parents, parental attachment and ego identity on high school student' career decision level,"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al forum 7(1), pp. 57-74. 2008.
- [4] E. J. Cho, "The Effects of Perceived Parenting Behaviors and Hopes on Career Attitude Maturity among High School Students," 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Yeungman University, 2012.
- [5] Super, D. E, "Vocational adjustment: Implementing a self-concept. Occupations30," pp. 88-92, 1951.
- [6] Costanzo, P. R, & Shaw, M. E, Conformity as a function

- of age level. *Child Development*, 37 pp. 967-975, 1996.
DOI: <http://dx.doi.org/10.2307/1126618>
- [7] H. R. Lee, P. J. Park, "The Effect of Career Exploration Group Counseling Program on Career Maturity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f Middle School Students,"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13(1). pp. 191-210, 2006.
- [8] Implementation Plan for Free Semester system for Middle School Students, Ministry of Education, 2015.
- [9] K. S. Yang, "The Effects of Home Environments and Perceived Family Health on Children's School Adjustment,"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Konkuk University, 2010.
- [10] Roe, A, *The psychology of occupations*. New York: John Wiley & Sons, 1956.
DOI: <http://dx.doi.org/10.1037/13192-000>
- [11] Hollander, J. W, Differential parental influence on vocational interest development in adolescent mal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 pp. 67-76, 1972.
DOI: [http://dx.doi.org/10.1016/0001-8791\(72\)90008-5](http://dx.doi.org/10.1016/0001-8791(72)90008-5)
- [12] M. S. Suk, "Relations among parental overprotection, children's negative automatic thought and their anger"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Ewha Women's University, 2014.
- [13] M. Y. Huh, "A Study for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Inventory for Parenting Behavior Perceived by Adolescents.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12(2), 170-189, 2004.
- [14] Bandura, A.,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Social cognitive theory. Trenton," NJ: Prentice-Hall, 1986.
- [15] Hackett, G. & Lent, R. W, "Career self-efficacy: Empirical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0," pp. 347-382, 1987.
DOI: [http://dx.doi.org/10.1016/0001-8791\(87\)90010-8](http://dx.doi.org/10.1016/0001-8791(87)90010-8)
- [16] S. J. Ryu, "A Study of the Effects of Self-efficacy and the Types of Career Decision-making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Focusing on students majoring in beauty in junior college,"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Beauty and Art* 15(2) pp. 233-250, 2014.
- [17] Bandura, A., "Social Learning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77.
- [18] Dreikurs, R., *The challenge of parenthood*. N.Y.: Hawthorn. 1958.
- [19] Basow, S. A & Howe, K. G., "Model influence on career choice of college students. *Vocational Guidance Quarterly*," 27(3), 239-243, 1979.
DOI: <http://dx.doi.org/10.1002/j.2164-585X.1979.tb00991.x>
- [20] Astin, H. S., The meaning of working women's lives: A socio-psychological model of career choice and work behavior. *Counseling Psychologist*, 12, pp 117-126, 1984.
DOI: <http://dx.doi.org/10.1177/0011000084124002>
- [21] Y. K. Ji, "The Effect of Sex-Role Identity and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on Career Attitude Maturity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Career Education*. 18(2), pp.199-217, 2005.
- [22] G. Becker, W. C, "Consequence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1)", pp. 169-208, 1964.
- [23] S. J. Kim, Y. H. Kim, "Review about Child Rearing Attitude of Parents," *The Academic Society of Parent-Child Health* 10(2), pp 172-181, 2007.
- [24] Symonds, P. M., "The dynamics of parent child relationships," New York: Bureau of Publications of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1949
- [25] Schaefer, E. S., "A Circumf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 Social Psychology*, 59, 226-384.
DOI: <http://dx.doi.org/10.1037/h0041114>
- [26] Baumrind, D., "Child care practices anteceding three patterns of pre-school behavior,"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75, 43-88. 1967.
- [27] H. K. Kim, "The Effects of Mothers' Ego resiliency on the Perception of Children's Problem Behaviors and the Parenting Style",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Graduate School Yeung nam University, 2014.
- [28] S. K. Yoon, "The Parenting styles, self-esteem, political efficacy, and collective social action Department of Sociology, Graduate School. Pusan National University, 2004.
- [29] M. R. Jung, "Child rearing and parents role," 112-118, Yangseowon, 2013.
- [30] Baumrind, D., "Current patterns of parental authority," *Developmental Psychology Monographs*, 4(1, part 2). 1971.
- [31] G. E. Kang,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al Attitude and Career Maturity of High School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Parental Attachment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Major in Counseling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Yonsei University, 2014.
- [32] J. S. Park, "A Study on the Effects of the Active Parenting Today Program on Mothers' Child-Rearing Attitudes and Self-Esteem in Mothers and Adolescent Children," Department of Education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eimyung University, 2009.
- [33] C. O. Lee, "The Effect of a Parenting Attitude and Image of God on Social Adjustment of Christian Adolescents," Department of Christian Studies Graduate School Hannam University. 2013.
- [34] Hurlock, E. B., *Child Development*(6th ed). N.Y: Mcgraw-Hill, 1978.
- [35] K. S. Jang, "A Comparative Study of the Child-rearing Attitudes of Christian Families and Non-Christian Families: Focusing on the Parents of Elementary-school Students in Seoul, Korea," Department of Christian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Christian Studies Baekseok University, 2012.
- [36] S. H. Kwon, "The Influence of Parents' Fostering Attitude Perceived by Christian Adolescents on Their Self-esteem," Department of Christian Counseling The Graduate School of Korean Bible University. 2010.
- [37] J. J. JO, "Impact of Parental Attitude on Self-Esteem and Self-Expression of School Students," *Graduate*

- School of Social Welfare. Kyungwoon University, 2011.
- [38] Y. K. Kim, "A Study on the Perceived Parenting Attitudes,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 Subjective Well-Being of Middle School Students," Major in Counseling Psychology Department of Counseling Education Graduate School Sahmyook University, 2009.
- [39] Y. S. Ji,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Attachment Type and Fostering Attitude for Children," Advised by Prof. So, Jin Kwang, Major in Counselling,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Gachon University, 2015.
- [40] Brown, E. S., "Social class, child maltreatment, and delinquent behavior," *Criminology*, 22(2):259-278. 1981. DOI: <http://dx.doi.org/10.1111/j.1745-9125.1984.tb00300.x>
- [41] I. A. Kim, "Differentiation of self, according to religious tendencies and child-rearing attitude," Honam Theological University, 2003.
- [42] H. S. Jang, "My mother's self-esteem is at an infant for effects on rearing attitude," Honam Theological University. 2014.
- [43] W. S. Yun, "The Effect of 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Socioeconomic Status of Family on Parenting and Juvenile Delinquency,"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22(1), 2011.
- [44] Harren, A. V., "A model of career decision making for college stud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4(2), pp. 119-133, 1979. DOI: [http://dx.doi.org/10.1016/0001-8791\(79\)90065-4](http://dx.doi.org/10.1016/0001-8791(79)90065-4)
- [45] Gelatt, H. B, Decision-making: A Conceptual Frame of Reference for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9(3), pp. 240-245, Harren V. A, "A model of career decision making for college stud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4(2), pp. 119-133, 1979.
- [46] Y. M. Hwang, "The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methods, decision-making stages, and decision-making styles on the career decision-making quality of undergraduates"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Kunkuk University, pp. 2 2014.
- [47] S. H. Jang, "Career Guidance Activities for Youth," Dong Moon Publishing Co, 2015.
- [48] Dinklage, L. B., "Decision strategies of adolescent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Harvard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1968.
- [49] Krumboltz, J. D. & Scherba, D. S., "Effect of training in rational decision making on the quality of simulated career decis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29, No.6, pp.618-625, 1982. DOI: <http://dx.doi.org/10.1037/0022-0167.29.6.618>
- [50] L. J. Kim, "The Influence of Parents' Child Rearing Attitudes and the Child's Decision Making Style on the Self-Efficacy," Major in Educational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Hanyang University, pp.11. 2010.
- [51] Eden, D. & Aviram, "A. Self-Efficacy Training to Reemployment; Helping People to Help Themselv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8, 3, pp. 352-360, 1993.
- [52] Hackett, G. & Betz, N. E., "The relationship of career-related self-efficacy expectations to perceived career options in college women and 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5), pp.329-335, 1981.
- [53] K. H. Lim, "The Relationships of Home, School,"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Beauty and Art*. 2004.
- [54] E. K. Lee, "A Study on effect of self-efficacy upon the career development," Dep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wha Women's University, 2001.
- [55] A. M. Cho, "Career Decision-making Efficacy as a Predictor of Career Decision-making and Career Maturity in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38(4), 2000.
- [56] S. R. Kim, "The Influence of Parent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on Adolescents' Career Development.," Major in Counseling Psychology.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Hongik University, 2005.
- [57] J. H. Lee, "Development of Dance Instructional Model for Social-Emotional Learning at Secondary School,"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51(1), pp.397-410, 2012.
- [58] S. G. Park, "Children by parents and Teenagers' self-efficiency, Academic achievement," Major: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t Wonkwang University, 2003.
- [59] E. J. Kim, "A Comparison of Gifted Education of Korea and China, "Department of Education Cheonbuk National University, 2008.
- [60] S. M Han, "The Relationship among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Children's Achievement Motive and self-efficacy," *Majot* 48, 2014.
- [61] Brook. L., "Validity concerns for counselors using the 1978 edition of the career maturity inventory. *Canadian Counselor*," 18(1), 5-12, 1990.
- [62] Cook, E. P., "Annal review: Practice and research in career counseling and development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0, Crites, J, O, (1978), *Career maturity inventory: Attitude scale*. Monterey. CA: CTB/McGraw-Hill, 1991.
- [63] Spokane, A. R. & Fretz, B., "Process and outcome changes associated? With 8 sessions of career belief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 Research Association. San Francisco," 1992.
- [64] M. H. Bai, "The Relationships among Parent-Child Communication Types, Child-Rearing Attitude,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Educational Psychology and Curriculum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on, Korea*, 2008.
- [65] K. H. Lee & J. G. Kim, "Relationships between Combinational Pattern of Parenting Styles and Middle School Student's Adaptation to School Life,"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9(3), pp.1183-1200. 2008, DOI: <http://dx.doi.org/10.15703/kjc.9.3.200809.1183>
- [66] H. S. Song, "The effects of Mothers' Maternal Parental Beliefs and Attitudes on the PET Program," Honam Theological University, 2011.
- [67] H. J. Koh, "A Study on Effect of Career Counseling on Korean College Student' Decision Making Styles and

Career Decision Making Status," Major in Educational Psychology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Sookmyung Women's University, 1993.

- [68] J. S. Jeong,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ncourageme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feriority Feeling and Career decision-making of middle school students," Major in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13.
- [69] A. Y. Kim & J. E. Cha, "A study for the general self-efficacy scale development," Department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wha Women's University, 1997.
- [70] B. G. Kim, "Types and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of School Dropouts: A Latent Class Analysis Approach," Department of Youth Education and Leadership Graduate School, Myongji University, 2013.
- [71] H. J. Yi, "The Influence of Parents' Rearing Attitude on Self-Esteem in Christian Family: Faith Maturity as a Parameter," Major in Pastoral Counseling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of Pastoral Theology Chongshin University Seoul, Korea, 2014.
- [72] H. S. Suh, "Effects of fathering attitude on self-esteem, interpersonal skills and resilience of children close to adulthood,"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Counselling, Graduate School of Seoul Venture University Seoul, Korea, 2013.
- [73] S. A. Park, "The Effect of Parenting Attitude Perceived by Adolescents on School Violenc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Department of Family Life Welfare and Housing The Graduate School,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2013.
- [74] J. H. Cho, "Effect of Parent' Children's Attitudes Perceived by High School Students and Their Achievement Motivation on Career Decision Making," Major in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2003.
- [75] H. J. Woo,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parenting attitudes, psychological independence and career decision making styles," Major in Counseling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Yonsei University, 2002.
- [76] E. Y. Park, "The Impact of middle school student's academic self-efficacy and personal relationships on school related adjustment," Major in Curriculum and Educational Methods Graduate School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2015.
- [77] C. J. Kim & I. A. Kim, & H. M An,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perception of parents parenting style and their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The case of Korean primary school children" Korea Society of Elementary Education 12(1), pp.177-209, 2001.
- [78] B. S. Go, "The effects of academic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Career Barriers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of middle school students," Ajou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ounseling Psychology, 2011.
- [79] J. C. Huh, "Effect of Parental Rearing Attitudes and Communication on Adolescents' Career Decision-Making Styles," Korea Contents Association Review '10 Vol.10 No. 9 pp.504-518, 2010.

박 영 생(Young-Saing Park)

[정회원]



- 2013년 2월 : 상지대학교 평화안보·상담심리대학원 (상담심리학석사)
- 2016년 2월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박사과정 수료)

<관심분야>

사회과학, 사회복지, 청소년

변 상 해(Sang-Hae Byun)

[정회원]



- 2007년 8월 : 백석대학교 가족상담 전공 (상담학 박사)
- 2006년 9월 ~ 현재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
- 2003년 1월 ~ 현재 : 한국청소년보호재단 이사장

<관심분야>

사회과학, 사회복지, 청소년